

아우구스티누스의 교육사상과 신앙교육

정 현 속

수원대학교

〈요 약〉

전인교육을 목표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학교 교육은 지식 전달 위주의 파행 상태가 점점 더 심각해져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인격 도야와 심성 개발을 위한 신앙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현대 사회와 유사하게 문명사적 급변기에 신앙교육의 제도와 방법을 창안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예를 천착함으로써 전인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찾는 데 한 지침을 얻고자 하였다. 이에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독교 교육론」을 중심으로 그의 기독교 신앙교육을 개괄하고 현대적 교육상황에서의 의의를 논했다. 신앙교육의 목표, 하느님관, 인간 및 구원관, 인식론 및 교수-학습론을 고찰한 후 믿음과 이성의 관계, 언어와 실재의 관계에 바탕한 그의 독특한 신앙교육사상을 논했으며, 특히 그의 ‘학습조명설’에 따른 교사의 역할과 교수방법을 살펴보았다. 이로써 지식 중심의 현대 교육에서 윤리적 가치관과 삶의 목표를 심어주는 신앙교육에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을 적용하기 위하여 기본 원리로부터 구체적 실천 방안에 이르기까지 전반적 고찰을 하였다.

핵심 주제어 : 기독교교육론, 이성, 자유교양, 영성, 학습조명설

I. 서 론

현재 한국의 교육은 총체적 위기를 맞아 온갖 혁신의 방안이 나오고 있으나, 그 참된 원인은 찾지 못한 채 임시 방편적 제도 개혁에만 매달리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은 산업화와 정보화에서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에 따라 세계화 또는 글로벌(global)시대가 열렸고, 문화적으로는 가치관의 다원화와 다양화가 진행되고, 사회적으로는 도시화, 핵가족화가 가속됨에 따라 가족 붕괴 현상이 급증하는 등 교육외적 환경의 격변기를 겪었으며, 지금도 그 변화는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교육제도는 양적으로는 전 시민의 고등교육 수혜와 교육공학적 기술의 도입 및 교사 대 학생수의 감소 등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볼 정도이다. 즉 공교육 전반의 부실화와 사교육의 팽창, 입시의 과열, 왕따와 학교 폭력 등 비인간적 학교환경과 전인교육의 감소 등이다.

사회적 격변기를 맞으면서 전통적 가치관과 윤리도덕은 바뀌거나 무너지는데, 학교교육은 지식과 기술의 전달에만 치우쳐 교육을 강화할수록 더 이기적이고 소외된 인간을 양산하는 아이러니에 처하게 되었다. 전인교육 또는 인간성의 회복은 표어로만 주어졌을 뿐 실제 교육현장에서 도덕교육이나 종교교육은 거의 도외시 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들 명목상 인성교육도 지식측면의 교양교육 정도이지, 인격을 도야하거나 심성을 바르게 하는 훈련 측면은 학교교육에서는 무시되고 있는 형편이다. 인간성의 회복과 가치관의 확립이야말로 현 시대의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인데, 이를 위해서 교양교육으로서의 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에서 제공하는 도덕교육이나 종교교육만으로는 부족하고, 오히려 동아리 활동과 교회나 성당에서 제공하는 신앙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인 인격의 성숙과 심성의 교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것이다¹⁾.

세계적인 격변기를 맞이하여 청소년의 신앙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 시대의 화두가 되었다. 이 화제의 해결을 위한 준비로 아우구스티누스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세계사적 변혁기에 로마 제국의 변방인 아프리카(오늘날의 알제리)의 히포에서 주교로 활동했으며, 그리스 로마적 고대문화를 정리하여 중세의 새로운 문화를 탄생케한 선구자로 손꼽힌다. 그는 신학자로서 뿐만 아니라, 철학자, 역사학자, 심리학자 등 다 방면의 개척자로서 근대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개혁적 사상가들의 원천으로서 심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이 연구에서 특히 주목하는 바는 그가 기독교 신앙교육의 확립자로서 중요한 저술들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목활동을 통해 신앙교육의 모범을 보였다는 점이다.

1) 본고에서는 신앙교육을 종교교육의 일부로 보았다. 종교교육은 종교현상 전반에 관한 교육의 광범위한 의미로 쓰고, 신앙교육은 그 중에서 인격과 영성의 개발을 목표로 한 좁은 교육활동으로 제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의 중요 저서인 「기독교교육론」²⁾을 중심으로 신앙교육을 고찰하고, 현대 교육상황에서의 의의를 논한다. 먼저 II절에서 그의 사상과 그 역사적 영향에 대하여 간략히 고찰한 후 III절에서 그의 교육사상 일반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가 설정한 교양교육의 7과목은 중세교육의 틀을 기초 했을 뿐 아니라 현대 서구 대학교육에서 교양교과로 그 정신이 이어지고 있다. II 절과 III절의 광범한 개괄에서 논의의 초점을 신앙교육으로 좁히고, 그의 「기독교교육론」을 중심으로 신앙교육의 목표와 필요성, 하느님관, 인간관, 교수-학습 이론을 IV절에서 고찰한후 끝으로 그의 신앙교육의 현대적 의의를 논한다.

II.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과 그 영향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함께 서양의 3대 사상가로 꼽힐 정도이며, 역사에 미친 영향에 있어서는 이 두 위인보다 오히려 앞선다고까지 말하는 경우도 있다.³⁾ 그는 신학자로서 교리체계를 수립했으며, 철학자로서 기독교 철학의 틀을 마련했다. 또한 기독교 역사 인식 체계를 마련하여 역사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며, 정치 사상가로서 국가론과 권위문제의 이론을 개진하기도 하였다. 교부 신학자로서 또는 저술가로서 널리 알려진 것만큼이나 목회자로서 신앙교육과 교육학 일반 또는 심리학에 끼친 영향도 심대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력은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그가 세상을 떠난지 16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여전하다. 초기 기독교가 방어적 태도에서 적극적 태도로 전환 할때, 그는 기독교 교리체계화의 풍부한 원천을 제공하였다.⁴⁾ 그리고 신플라톤주의 철학을 기독교 설명의 이론적 근거로 삼음으로써 기독교 철학의 지평을 열었고, 철학과 신학을 절묘하게 통합하였다. 플로티누스의 신플라톤주의에 바탕 하여 유일신 하느님의 창조론을 전개했으며, 악이란 실체가 아니라 선의 결핍이라는 선일원론(善一元論)을 제시 하였다. 그의 「자유지론」에서 마니교도들의 선악 이원론에 대응하여 하느님의 존재가 절대선임을 주장하였다. 만물의 창조자로서 하느님과 악의 기원 문제를 정면으로 논의 함으로써,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느님의 은총과 예지 문제까지 다루었다. 이것은 철학과 신학의 근본적 문제를 정직하게 탐구하는 고전적 모범이 되었다.

그는 신학과 철학의 결합에 있어서 믿음과 이성을 서로 분리하여 대립되고 배척 하는 것으로 파악하지 않았다. 믿음에 대한 합리적 표현을 위한 그의 노력에서 믿음(faith)이 이해에 선행하고, 믿지 않으면 하느님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교조적 신앙의 강요를

2) 「De Doctrina Christiana」의 우리말 번역본은 (『그리스도 교양』, 성명 역, 분도출판사, 1989와 『기독교 교육론』, 김종흠,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사, 1994)이 있다. 본고에서는 교육을 강조하는 점에서 후자를 인용의 기본으로 삼았다.

3) R.Meagher, *Augustine: An Introduction* (New York: Harper Colophon Books, 1978), xiii.

4) K.Jaspers, *Plato And Augustine*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62), p.116.

주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인간의 합리적인 이해의 노력을 통하여 하느님의 절대선과 예지에 접근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하느님은 무한(infinite)하기 때문에 유한한 마음(finite mind)으로는 그 전체를 인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신의 무한성과 신비성에 대한 열린 마음이 심오한 성찰을 위한 전제이며, 이것이 또한 자유의 원천이 된다고 보았다.⁵⁾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앙과 이성의 절묘한 조화가 오랜 세월동안 서구 기독교 사회의 철학과 신앙에 심대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쳐왔으며, 교부 철학의 대표자로서 특히 중세의 사상과 문화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대교황 그레고리(Gregory the Great)는 성경의 이해와 주석을 아우구스티누스에 의존하였고, 샤를마뉴(Charlemagne)는 신성 로마 제국 건설의 이상을 「신국론」에서 얻었다고 했다. 중세 스콜라 철학의 대표인 성 안셀무스(St. Anselmus)와 성 토마스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는 아우구스티누스 철학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⁶⁾

중세의 틀을 벗어나 근대를 열어가는 종교개혁에서도 역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론의 원천이 되고 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인 루터(M. Luther)와 칼빈(J. Calvin)의 개혁적 신학이론이 사실은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의 재발견에 기초하고 있다. 오미어러(J. O'meara)는⁷⁾ 루터가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의 일원으로 그의 저술을 탐독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으며 칼빈의 예정론과 인간의 절대적 부패가능성 등에 대한 주장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에 연계되어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적 영향력은 중세와 근대를 넘어 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다. 마리탱(J. Maritain), 니버(R. Niebuhr), 틸리히(P. Tillich)와 칼 바르트(K. Barth)등 신학자들이 그로부터 영감을 받았으며, 서구 신학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석이라고 말 하기도 한다.⁸⁾

신학 뿐만 아니라 서구 철학에 있어서도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은 심대하였다. 그의 철학은 그가 받은 인문주의적 교육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그가 「고백록」에서 기독교 바깥에서 얻은 지식이 매우 유용했고, 그것이 전 인생에 걸쳐 도움을 받았기에 고전적 인본주의 교육에 감사한다고 말했듯이 그는 기독교 교육에서 인문학의 중요성을 역설했으며, 기독교 신학과 함께 고전 학문을 종합하여 발전시킨 공이 크다. 이러한 인문주의 교육에서 철학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가 서구 철학의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친 소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근대 철학에 미친 영향중 특히 널리 알려진 것으로 데카르트의 유명한 명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들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5) D. D. Williams, "The Significance of St. Augustine," Robert Battenhouse 편, *A Companion to the Study of St. Augustin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p.5

6) R. Battenhouse, "The Life of Augustine", *A Companion to the Study of St. Augustin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p.54

7) J. O'meara, *An Augustine Reader* (Garden city: Image Books, 1973) p.24

8) D. Daniel, "The Significance of St. Augustine Today," *A Companion to the Study of St. Augustine* (New York: Baker Book House, 1979) p.4

확신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신 및 그 피조물들의 존재를 의심한다고 하여도 인간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회의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회의한다는 것은 자신이 존재함을 뜻하게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데카르트의 존재론을 이미 논했다고 여겨지고 있다. 다른 잘 알려진 예로 17세기 안센주의자 파스칼은 인간의 부패와 윤리에 관한 사상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을 받았으며, 19세기 뉴만(Newman)주교의 사회철학에서도 그의 믿음과 이성에 관한 교리가 되살아나고 있다.⁹⁾

현대에 들어서도 아우구스티누스에 관한 관심은 여전히 다양한 분야에서 일고 있다. 야스퍼스(K.Jaspers) 같은 철학자, 니버(Niebuhr)같은 신학자, 도슨(Dawson)같은 역사학자와 호위(G.Howie)같은 교육학자 등이 그의 다양한 면을 연구하였다.

그의 면모가 다양한 만큼 그의 저술도 불후의 명작 「고백록」을 비롯하여 「자유지의론」, 「신국론」 등 신학 철학 정치학에 깊은 영향을 미칠만큼 고전의 반열에 오른 것이 다수이다. 그 중에서 교육학 특히 신앙 교육에 직접적 관련된 중요 저술로는 「교사론」(De Magistro), 「기독교 교육론」(De Doctrina Christiana), 「입문자 교리교육」(De Catechizandis Rudibus)을 들 수 있으며, 「고백록」 또한 신앙교육의 고전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독교교육론」을 중심으로 그의 사상과 신앙교육을 검토하고 오늘날의 교육 현상과 관련하여 그 의의를 논의하려 한다.

III. 아우구스티누스의 교양교육사상

아우구스티누스의 교육사상은 그의 철학 및 신학 사상에 바탕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의 교육목적은 삶의 근본목적과 합치한다. 그는 삶의 근본목적이 진리와 행복의 추구이며 이들은 불가분리의 하나라고 생각했다. 그의 「자유지의론」에서 말하기를

진리 속에서 최고선이 인식되고 견지되며, 그 진리가 곧 지혜인 만큼, 우리는 진리 속에서 최고선을 식별하고 견지하고 최고선을 향유토록 하자. 최고선을 향유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다. 바로 이 진리가 저 모든 선들을(선한 것으로)밝혀주는데, 저 선들은 곧 참된 것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각자의 역량에 따라서(저 선들을) 인식하면서(저 선들 가운데) 하나씩 또는 여럿을 끌어서 향유하는 것이다.¹⁰⁾

그에게 있어서 최고선은 상대적인 것이 아닌 절대적인 것이며, 하나이고 유일한 것으로 곧 하느님이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느님을 통하여 최고의 선을 가지게 되고 여기서 진정

9) D. D. Williams, op.cit., p.3

10) A. Augustinus, *De libero arbitrio*, II, XIII, 36, 정영 역주, 『자유지의론』, 분도출판사, 1998, 227쪽.

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에서 교육의 목적은 하느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하여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하느님은 모든 것의 원천이며, 인간 지식의 궁극적 근원이요 인간 삶에 있어서 지고의 선과 행복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행복은 진리로부터 얻을 수 있으며 이 진리는 이성적 지능으로부터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성의 교육과 훈련이 요청된다. 그런데 이성의 교육훈련을 위해 필요한 기본자료는 성경이며, 그의 올바른 해석이다. 이 점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는 물론 교부시대 모두가 이견이 있을 수 없었다. 문제는 성경이외의 그리스 로마의 인문학적 내용을 기독교 교육의 내용에 포함할 것이냐에 있었으며, 많은 논쟁이 있었다. 테르툴리안(Tertullian)처럼 극단적으로 이교문학과 사상을 배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¹¹⁾,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교들이 한 바른 말은 주의 깊은 분별력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의 글에서 그의 입장이 잘 나타나 있다.

바로가 말한 대로든 그렇지 않은 간에, 속인들의 미신 때문에 음악을 기피하지는 말고 우리가 성서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것을 취할 수 있다면 해야 한다. 물론 수금이나 풍금에서 무엇이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를 따지기 위해서 굳이 그들의 극장에서 행하는 몸쓸 장난을 관람할 필요는 없다. 또 문학의 신이 메르큐리우스라 한다고 해서 문학을 안 배울 필요는 없고, 그들이 정의(正義)나 덕(德)에 신전을 바쳤고 마음으로 닦아야 할 것을 돌로 새겨 예배하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의와 덕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무릇 선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디서든지 진리를 발견하면 자기 주님의 것으로 이해할 것이며 그 진리를 취하고 인정해야 한다.¹²⁾

초기의 저작인 「복된 삶」(De beata vita)⁴⁾에서도 그는 교양교육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으며, 말년의 저술인 「신국론」(De civitate Dei)에서도 여전히 견지되었다. 예를들면 자유교양교과의 샘으로부터 이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은 배고프고 굶주리게 되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영양실조로 인해 병들 수 밖에 없다고 보았다. 「신국론」에 의하면 인간은 한시적 현실 세계와 영원 불변의 세계에 동시에 속하기 때문에 이중의 의무를 지니고 있는 존재이다. 기독교인은 이런 점을 인식하여 세속의 학문과 지식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한쪽에 치우쳐 정신적 영양실조에 걸려서는 안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실 세계가 전부 아니며 영원한 삶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일이다.¹³⁾

11) G.Howie, *Educational Theory and Practice in St. Augustine*,(New York: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1969) pp.216-219.

12) A. Augustinus, *De doctrina christiana*, II, XVIII, 28, 성염 역주, 『그리스도교 교양』, 분도출판사, 1989, 161쪽.

13) 이석우, 「어거스틴의 교육사상」, 『서양고대사연구』 3,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 1995, 112쪽.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관점에서 교양학과의 내용들을 선택 수용 했으며, 7개의 자유 교양교과를 선정하였다. 그는 교양교과로 문법, 수사학, 논리학, 산술, 기하, 음악, 천문학을 제시하였다. 원래 그리스 로마의 교양교과는 7개 과목으로 한정된 것은 아니었으며, 바로 (M.T.Varro, 116-27BC)는 이에 의학과 건축학을 포함하여 9개 과목을 교양교과로 정했으며, 퀸틸리안(Quintillianus, 35-95AD)은 중등 교육과정에 이런 교과들을 배치했다.

7개의 자유교과(liberal arts)를 3학(Trivium)과 4과(Quadrivium)로 구분해서 교양교과로 확정 한 것은 보에티우스(Boetius), 카시오도루스(Cassiodorus) 이시도르(Isidore) 등 이었다. 특히 카시오 도루스는 유대와 기독교의 전통에 따라 '7'을 성스러운 숫자로 보아 자유과를 7개로 정했 다. 3학에 해당하는 과목을 인문학(art), 4과에 해당하는 과목을 도야과목(discipline)으로 규정 했다.¹⁴⁾

중세와 근대 및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구의 자유교과는 교양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했으며 서구 지성의 특성을 결정지어왔다. 그리스에서 시작된 교양교육의 전통이 중세 기독교 사 회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기여가 거의 결정적이었으 며, 서구 지성사에 있어서 그의 지위와 영향력을 대변해준다고 하겠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교사교육에서 자유교양교육이 필요한 이유로 교사들로 하여금 특정한 선입견을 피하여 일반적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함을 들었다.¹⁵⁾ 또한 문법은 언어를 기 호로 사용하는 방법을, 수사학은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수단을, 논리학은 추리력과 기호 의 의미를 터득하는 길을 제공한다고 보았으며, 예로 수사학의 중요성을 「기독교 교육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수사 기술은 진리나 거짓을 주장하는데 효과가 있으므로, 진리를 옹호하는 사람이 대 표하는 진리가 아무 무장도 없이 거짓과 대립하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는가? 예컨대, 거짓을 사람들에게 믿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호의적인 것으로 만들며, 귀를 기울여 배우게 만들도록 문제를 제시하는 방법을 알고, 진리를 옹호하는 사 람들은 그런 기술을 모르라는 것인가? 전자는 그 거짓을 간단 명료하고 그럴 듯하게 말 하는데, 후자는 듣기에 지루하고 알아듣기 어렵고 믿기에 쉽지 않은 모양으로 말하라는 것인가? 전자는 진리에 반대하기 위해서 궤변적인 논법을 동원하는데, 후자는 진리를 옹 호할 줄도 모르고 거짓을 논박할 줄 몰라도 좋은가?¹⁶⁾

산술, 기하, 음악, 천문학 들은 원인과 결과, 우주의 질서를 수적 비율로 이해하는데 도움

14) Curtis S. J, M.E.A.Boulwood, *A Short History of Educational Ideas*, Foxton: University Tutorial Press, 1975, pp88-89.

15) G. Howie, op.cit., p.230

16) A. Augustinus, *De Doctrina Christiana*, IV,II. 3, 김종흠 역, 「기독교 교육론」, 서울크리스찬 다이제스 트, 1994, 134쪽.

이 된다고 보았다.¹⁷⁾

아우구스티누스가 기독교 교육에 자유교양교과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신앙교육의 보조적 도구로서 가치를 인정한 것이지 목적으로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예로, 수사학적인 방법들은 활용하였지만, 수사학 자체를 연구하거나 저술을 집필하는 것에는 반대하였다. 그것은 인간의 언어는 변하고 한정된 감각적 세계의 표지이므로 영원 불변의 진리를 파악하는 데에는 직접적 기능을 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언어의 이러한 한계성을 파악한 것은 수사학의 대가 키케로를 오히려 능가한 것이라 볼 수 있다.¹⁸⁾ 전통적인 수사학이 형식과 방법론에만 치우쳤던 것에 반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진리의 내용을 형식과 통합시키는 점을 강조했다. 그래서 인간이 진리를 파악하는 노력은 교양교과가 아닌 신앙교육에서 하느님의 은총과 조명으로 가능하며, 인간의 내면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체험함으로써 성취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아우구스티누스 교육사상의 핵심과 목표는 신앙교육을 통하여 하느님을 믿고 진리를 알아 궁극적 행복을 얻도록 하는 것이었다.

IV.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앙교육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앙교육 관련 주요 저술은 「교사론」(De Magistro), 「기독교 교육론」(De Doctrina Christiana)과 「초신자 교육서」(De Catechizandis Rudibus)가 있으며, 그의 대표작 「고백록」(Confessione)도 신앙교육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기독교 교육론」은 성경의 교육에 관한 가장 중요한 지침서로 손꼽히고 있다. 이 책은 모두 네 권으로 되어 있으며, 제1권은 성경의 해석과 그 의미의 표현에 관하여 논하고, 제2권과 3권은 성경해석에 필요한 부호 즉 ‘말’(언어)의 본성과 사용법을 고찰한다. 1권부터 3권까지에 신앙교육의 목적, 내용, 성경 해석과 언어의 문제들을 다루었고, 제4권은 표현의 기술인 수사학과 기독교 교사에 관한 교수 지침서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독교 교육론」을 중심으로 아우구스티누스 신앙교육의 목표와 필요성 및 효과, 그의 하느님관, 인간관, 인식론 및 교수-학습론을 차례로 논하겠다.

아우구스티누스 교육사상의 목표는 하느님을 믿고 그 은혜 속에서 궁극적 행복을 얻으며 하느님의 진리를 향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교양교육을 통한 일반적 지식의 전수가 목적이 아니고 신앙교육을 통한 하느님과 하나됨이 목표이다. 하느님은 영원하고 무한하며 완전하다. 또 지고의 선으로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 목표이며, 모든 지식의 원천으로 향유해야 할 최고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는 신앙교육의 필요성과 효과를 「기독교 교육론」 제1권 제1장에서 성경의 비유를 인

17) G. Howie, *St. Augustine: On Education* (South Bend: Gateway Editions, Ltd., 1969), p.1977.

18) E. T. Flood, Augustine and Classical tradition of rhetoric, in *History of Education*, vol.II. No.4, 1982, p.249.

용하여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저 기적적인 떡덩이들은 제자들이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눠 주기 전에는 다섯 개와 일곱 개였다. 그러나 그들이 나눠주기 시작하자 수 천명이 먹고 배가 불렀지만, 남은 부스러기를 여러 바구니에 가득 채울 수 있었다. 떡덩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떼어주는 과정에서 이렇게 더 불어난 것과 같이, 주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나에게 이미 주신 그 생각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자마자 하느님의 은혜로 더 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나눠주는 일을 할 때에 손해를 보거나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놀랍게 불어나고 풍성해질 것이다.¹⁹⁾

이 글에서 보듯이 그는 떡을 나눠주는 성경의 내용을 비유적으로 해석하였으며, 그는 비유적인 표현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됨을 뒤편의 언어와 기호에서 자세히 논한다. 여기서도 떡덩어리를 굶주린 사람에게 나눠주는 상황을 주님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것으로 즉 신앙교육적 상황으로 해석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앙교육은 그의 하느님관, 인간관, 인식론, 교수-학습 이론에 바탕하고 있으므로 먼저 하느님관부터 고찰하겠다. 그는 이 세계 만물 중에서 오직 하느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며 다른 모든 것은 이 하느님을 만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하느님은 삼위일체로써 만유를 초월하며 만물의 기원이라고 보았다. 그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 하느님이시며, 동시에 모두 한 하느님이시다. 각각 완전한 실재(實在)이면서 동시에 모두 한 실재이다.²⁰⁾ 고 삼위일체론을 폈으며, 영원성, 불변성, 최고의 존엄성과 만능을 가지신 하느님이며, 언어로서는 형언할 수 없는 분이라고 보았다.

여기서 언어로 형언할 수 없는 분인데 어떻게 언어를 통한 신앙교육이 가능한가의 문제가 제기되며, 따라서 「기독교 교육론」에서 언어의 사용과 수사학에 대한 내용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언어의 한계와 신앙교육의 가능성은 뒤에 교수-학습론의 조명설에서 다시 고찰하기로 하겠다.

제1권에 그의 하느님관에 이어서 인간관과 그리스도관이 제시된다. 인간이 하느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그 형상은 인간의 영혼 속에 있고, 아담의 타락 이후에도 그 형상은 없어지지 않았다는 견해를 가졌다. 그러나 원죄의 결과 모든 인간이 죄 중에서 출생하여, 부패하였으므로 사망이 오며 영혼이 몸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여 선을 행하는 자유마저 잃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보았다. 타락과 구원에 관한 이러한 관점이 「기독교교육론」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19) A. Augustinus, *De Doctrina Christiana*, 김종홍 역, 『기독교 교육론』, 서울리스칸 다이제스트, 1994, 30쪽.

20) Ibid. I, V, 5, p.32

여인으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여인에게서 나신 것이다.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는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죽을 우리를 구하시려고 죽을 사람이 되셨고, 죽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가 죽으셨다.²¹⁾

이제 신앙교육에 관련된 하느님관과 인간 및 그리스도관에 이어 인식론과 언어를 고찰하자. 우리가 악을 행하고, 고통 받는 생활에서 하느님의 진리를 향유하고 행복을 되찾으려면 하느님의 은혜로 영혼의 구원을 얻도록 신앙교육을 받는 것이 구체적 길이 된다. 그러므로 인간 영혼의 지식은 가장 중요한 지식탐구와 교육의 주제가 된다. 인간의 몸은 비록 하느님의 창조이기는 하지만 썩고 분해되며, 영혼에 짐이 된다고 보았다. 반면에 영혼은 변하거나 썩지 않으며 분해되거나 부서지지 않고 죽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영혼의 지적 능력은 그의 큰 관심사였으며, 본래 진리를 탐구할 역량을 가지고 있으나 죄로 부패하여 그 능력이 어두어 졌기 때문에 구원을 필요로 한다고 했다.²²⁾

그렇다면 인간의 영혼은 진리인 하느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앎’의 문제는 철학과 교육학 일반에서 중요한 주제이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경우는 ‘절대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묻는 다는 점에서 신앙교육의 핵심을 묻는 것이며, 그의 답 또한 획기적인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앎’은 영혼의 ‘이성’ 기능이라고 보는 것인데, 아우구스티누스는 ‘믿음’이 ‘이성’보다 더 근본적인 요소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절대 진리의 인식은 이성의 이해로부터가 아니고 믿음이라고 주장하였다. “진리에 대한 지식은 믿음의 보상이다” 즉 믿기 위해서 이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신앙교육에서 이성의 기능을 폄하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님은 그의 교수학습 이론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며, 믿음이 맹신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반드시 이성의 추론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았다.²³⁾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하지만 언어로 설명되고 전달되지 않는다면 선교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교육론」에서 낱말과 실재의 관계 및 성서 해석의 문제를 심도있게 다룬다. 낱말은 기호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가 지식을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실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비유적인 표현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²⁴⁾

비유적인 표현을 문자적인 것같이 해석하면, 그것은 육적인 해석이 된다. 영혼의 속성으로서 영혼을 동물보다 우수하게 만드는 것은 지성(知性, *intellegentia*)인데, 문자적인 의미를 맹목적으로 고집함으로써 그 지성을 육에 예속시킨다는 것은 영혼을 죽이는 것이라고 하는

21) Ibid. I, XIV, 13, p.38

22) N.L.Geisler, *What Augustine says*, Grand Rapids:Baker, 1982, pp.103-114.

23) G.Howie, *Educational Theory and Practice..* pp.49-50.

24) 김재은, 「성 어거스틴의 교육론」, 『신학과 세계』 33, 감리교신학대학교, 1996, 271쪽.

것이 가장 적합한 말일 것이다.

문자를 따르는 사람은 비유적인 말을 문자적인 말로 인정해서, 그 말이 가리키는 것을 따라 2차적인 뜻에 도달하지 못한다. 예컨대, 안식일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레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돌아오는 날을 생각할 뿐이며, 제물이라는 말을 들으면, 관습적으로 바치는 동물이나 땅의 열매를 생각할 뿐이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한다. 참으로 부호로 만족하고 사실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며, 감각적인 피조물을 초월한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보면서 영원한 빛을 흡수할 줄 모른다는 것은, 영혼이 가련한 노예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²⁵⁾

성서를 학습함에 있어서 문자의 기호적 기능을 떠나 진리와 실재를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여기에 아우구스티누스의 교수-학습 이론의 핵심인 조명설이 등장한다.²⁶⁾ 학습자는 진리에 대한 내적 이해를 이미 가지고 있다. 즉 하느님께서 주신 인간 내면의 능력에 의하여 스스로 배운다는 것이다. 학습은 진리에 대한 내적 지식에 학습자의 믿음이 첨가될 때 일어나며, 이때에 학습자의 행위와 태도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학습 조명설은 많은 후속 논의가 있었으며 그중 규범주의적 해석이 널리 알려졌다.²⁷⁾ 이 해석에 따르면 학습의 행위시에 하느님의 빛이 궁극적 표준을 제공하며 그 빛에 비추어 지식을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학습의 조명설에 의하면 교사의 역할은 진리의 전수자가 아니다. 하느님이 학습자의 내면에서 가르치는 큰 교사이고, 교사는 학습자가 신앙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단지 산파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의 교사론은 「초신자 교육서」(De Catechizandis Rudibus)에서 찾아볼 수 있는바, 무엇보다도 교사가 학습자를 형제애로써 존중할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가르치는 방법에서 학습자가 편안한 자세로 들도록 함이 좋다고 했으며, 소집단으로 구성된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을 권장 했다.²⁸⁾ 「기독교교육론」 제4권에서 기독교 교사의 화법과 수사학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교사는 웅변과 지혜를 겸비해야 하며 명석한 말씨를 배양하는데에 특별히 유의해야 하고 이를 위해 열심히 연구함과 동시에 이런 능력들을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고 주의하였다.²⁹⁾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려 할 때에 우선 하느님께 합당한 설교를 할 수 있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책의 끝에서 이 점을 다시 강조할만큼 언어를 초월한 하느님의 능력을 전편에 걸쳐 강조하였다.³⁰⁾

또한 신앙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듣는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며, 기쁘게 듣고 생활에서 실행하게 만드는 것임을 강조하고, 교사 직책의 존엄성과 책임을 지적하면서, 자기가 가르치는 것과 생활이 일치하며 모든 사람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라고 권고하였

25) De doctrina christiana, III, V, 9, 김종흡, 103쪽.

26) G. Howie, *Educational Theory and Practice*...p.124

27) D. Chidester, *The Symbolism of Learning in St. Augustine*, in *Harvard Theological Review* 76: 1, 1983, p.73

28) G. Howie, op.cit., p.19

29) De doctrina christiana, IV, 김종흡, 133쪽.

30) Ibid., IV, XXX, 63, p178.

다.³¹⁾

교사의 생활에 대하여 「기독교 교육론」 제4권 28장에 구체적인 예들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는 단정한 생활을 견지하는 동시에 세평(世評)도 좋도록 노력한다. 하느님과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에 조심하며,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사랑한다.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에도 말이 아니라 말하는 내용으로 그들을 기쁘게 한다. 사실대로 말할수록 잘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며, 교사는 자기가 하는 말에 지배될 것이 아니라 말을 지배해야 된다고 믿는다.³²⁾

이러한 구체적인 생활의 지침에 이를 만큼 그의 저술은 실용적이며, 현장 경험에 바탕한 기독교 교사용 지침서이다. 동시에 신앙교육의 근본정신을 철저히 견지하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앙교육의 핵심은 하느님의 은총이며, 이것이 그의 인간론인 인간의 원죄와 구원, 학습이론인 조명설, 교사론에 걸쳐 일관된 정신이다.

V. 토 의

본고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 일반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그 중 교육사상 특히 교양교육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의 중심주제인 신앙교육을 그의 저서인 「기독교 교육론」을 중심으로 논하였으며, 그가 제시한 신앙교육의 목표, 하느님관, 인간관, 인식론 및 교수-학습론을 차례로 고찰하였다. 그의 일반철학 사상과 교양교육정신 그리고 신앙교육이 일관되게 하느님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듯이 삶의 목표와 일반교육의 목표 및 신앙교육의 목표 역시 하느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으로 일치되게 제시된다. 삶의 근본목적이 진리와 행복의 추구인데, 하느님이 바로 절대적 진리이므로 하느님을 통하여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과 신앙교육은 중세의 기독교 교육의 토대가 되었을 뿐 아니라 종교개혁가들의 사상적 원천을 제공했으며, 근대 및 현대 종교학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앙교육이 우리가 당면한 현대 사회의 교육에 시사하는 의의에 대하여 논하겠다.

현대교육은 초·중등 및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지식 중심의 교육이다. 일반 교양교과에 더하여 전문기술교육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학교교육에서 종교교육은 교양교과의 일부로 신앙교육과는 거리가 멀다. 신앙교육은 일부 중립학교의 미미한 시간 배정이나, 동아리 활동에 한정되어 있고, 교회나 성당 또는 사찰 등에서 행하는 청소년 종교활동에 맡겨있을

31) Ibid., IV, p133.

32) Ibid., IV, XXVIII, 61, p176.

뿐이다. 가정에서조차도 입시 중심의 지식교육에 경도되어 신앙교육은 도외시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교육 상황은 청소년은 물론 현대 사회 일반에 많은 병폐를 일으키고 있다.

지식과 기술에 편중된 치열한 경쟁상황은 청소년들의 정서발달과 심신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물론이고, 삶의 근본목적을 착각하거나 상실하는 도덕과 가치관의 붕괴 및 영성의 황폐화를 불러왔다. 국가적으로 교육기회는 확대되었지만, 이기적이고, 비인간적인 지식층을 양산하고, 사회구성원간의 인격적, 영적 관계에서 분열과 단절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 파행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각 구성원의 불행은 물론 사회자체의 분열과 붕괴로 이어질 위험까지 있다. 지식편중의 현대교육의 과오를 시정하기 위해 아우구스티누스의 교육사상 특히 신앙교육으로부터 시사점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현대교육이 갖고 있는 큰 맹점은 지식과 기술 자체에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인간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을 전도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삶과 교육의 근본목적은 진리와 행복의 추구임을 밝히고 최고의 궁극적 진리는 하느님이며 따라서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한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 교양교과와 전문적 기술 교육은 최고의 진리와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보조적 기능을 하는 것인데 현대교육에서는 이들을 주 목적으로 착각케 함으로써 인격의 향상, 영성의 인식 등 개인의 행복과 인류의 평화에 꼭 필요한 신앙교육을 등한시 하게 하였다. 이 결과 현대교육은 전인적 교육과는 정반대의 소외되고 분열된 인간을 양산하는 모순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현대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함에 있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독교 교육론」을 전범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 교육론」이 현대교육의 핵심적인 오류를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는 훌륭한 지침서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의 공교육에서 적용되는데 어려운 점이 있음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한국 사회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는데, 글로벌(global) 시대를 맞이하여 종교의 다원화와 문화의 다양성이 일반화가 된 점이다. 이로 인하여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독교 교육론」에 제시된 표현들을 문자 그대로 고집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미 ‘문자적인 의미를 맹목적으로 고집함으로써 그 지성을 육에 예속시킨다’. ‘문자를 따르는 사람은 비유적인 말을 문자적인 말로 인정해서, 그 말이 가리키는 것을 따라 이차적인 뜻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지적 했듯이 문자적인 내용에 얽매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기독교 교육의 본질을 다양한 문화적 상황과 타종교의 콘텍스트에서 제시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삶의 목적이 ‘진리와 행복’의 추구라고 했는데, 불교에서는 이상적인 삶이 ‘복혜구족(福慧俱足)’이라고 하였다. 이는 동일한 내용의 두 표현이다. 또 아우구스티누스는 ‘궁극적 진리인 하느님’이라고 표현했는데, 불교에서는 이를 ‘법신불(法身佛)’이라하며 우리 말로 옮기면, ‘진리의 몸(法身)인 부처가 된다. 역사적 실존인 물인 ‘화신불(化身佛)인 석가모니 부처는 법신불의 나툼(化現化顯)이다. 이는 진리이신 말씀이 육화(肉化)하여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구원하심과 대응된다. 이 몇 가지 예는 아우구스

티누스의 '문자'에 얽매이지 않는 기본 정신을 현대적 종교 다원화 사회에 적용하는 가능성으로 들어 본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을 현대적 상황에 어떻게 되살리어 타종교와 공존하며 기독교 신앙교육을 전개 할 것인가는 깊이 연구해야 할 과제로 미루겠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앙교육이 현대교육에 시사하는 다른 중요한 점으로 그의 '조명설'을 들 수 있다. 교사와 학생이 어떻게 진리를 가르치고 전수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 물음에 대하여, 현대교육은 지식과 기술의 전달을 진리의 전달로 오해케 하고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 교육론」에서 언어나 문자로는 진리를 표현도 전달도 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책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였다. 그의 '조명설'에 의하면 학습자는 하느님이 주신 능력에 의하여 진리에 대한 내적 이해를 이미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교사는 하느님 자신이며, 교사는 학습자가 하느님의 빛에 신앙으로 응답 할 수 있도록 산파의 역할을 할 뿐이다.

이 조명설은 현대교육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 먼저 교사는 진리의 소유자나 전달자가 아니며 진리는 하느님으로 부터만 온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항상 겸허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기도하여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해야 한다. 이점은 아우구스티누스도 매우 강조한 점인데, 현대사회의 교사 특히 종교나 신앙교육 교사는 이점을 명심해야 한다. 다음으로 학생은 교사로부터 진리를 전달받는 피동적 수용체가 아니라 이미 하느님의 진리를 내적으로 이해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학생이 지식을 암기하는 방식과 같은 강의 중심의 교수학습 활동이 되어서는 안된다. 학생이 능동적으로 자신의 내면에 살아있는 진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북돋는 일이 중요하며, 아우구스티누스가 제시한 대로 대화식 교육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 대규모 강의실에서 집단을 상대로 강의식 교육을 하는 것은 신앙교육에서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끝으로 교사-학생의 관계에 있어서 교사는 학생을 인격체로 대하며 형제애로써 존중 해야 된다. 이점은 현대교육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전인교육 또는 인성교육의 근본 바탕이 된다 하겠다. 교사와 학생을 단순히 지식의 전달과 전수라는 자본주의적 관점의 교육이 행해지는 한 인성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음이 당연하겠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앙교육은 교사-학생의 올바른 관계의 전범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현대교육의 병폐 개선에 도움이 된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앙교육이 현대교육에 시사하는 바를 삶의 근본적 목적인 진리와 행복의 추구 관점과, 진리의 학습에 관한 조명설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 외에 언어와 인식론의 관점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 및 실제교육 과정에의 적용 문제는 후속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 김동구. 「Augustine의 교사에 관한 철학」, 『학생생활연구』 5, 청주사대 학생생활연구소, 1987.2
- 글렌젠트. 「어거스틴의 철학과 교육과정에 관한 그의 견해」, 『신학과 선교』 창간호,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1997
- 김재은. 「성 어거스틴의 교육론」, 『신학과 세계』 33, 감리교신학대학교, 1996
- 유지황. 「마음의 신학」, 『한국교회사학회지』 13, 한국교회사학회. 2003.
- 유해룡. 「영성형성에 대한 패턴 연구」, 『신학과 문화』 4, 장로회대전신학교. 1995
- 이석우. 「자유지와 역사」, 『건대사학』 10. 건국대학교사학회 2003
- 이석우, 『아우구스티누스』, 서울: 민음사. 1995
- 이석우. 「어거스틴의 교육사상」, 『서양고대사연구』 3.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 1995
- 정정숙. 「어거스틴의 교육사상 연구」, 『신학지남』 283. 신학지남사. 2005 여름
- 정준기. 「성 어거스틴 ‘고백록’의 현대적인 의미」, 『교회와 한국문제』 20, 기독교한국문제 연구회. 1993
- 정희숙. 「St. Augustinus의 영성교육론」, 『종교교육학연구』 13.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 주영흠. 「어거스틴의 교양교육론연구: 자유교양교과의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총신대논총』 17. 총신대학교 1998
- Augustinus A., *De doctrina christiana*. 성염 역주, 『그리스도교 교양』, 분도출판사. 1989
- Augustinus A., *De Doctrina Christiana*. 김종흡 역. 『기독교 교육론』, 서울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4
- Augustinus A., *De libero arbitrio*. 성염 역주. 『자유지의론』, 분도출판사. 1998
- Battenhouse R., “The Life of Augustine”, *A Companion to the Study of St. Augustin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 Chidester D., *The Symbolism of Learning in St. Augustine*, in *Harvard Theological Review* 76:1, 1983
- Curtis S.J, M.E.A.Boulwood, *A Short History of Educational Ideas*, Foxton: University Tutorial Press, 1975
- Daniel D., “The Significannce of St.Augustine Today,” *A Companion to the Study of St. Augustine* New York: Baker Book House, 1979
- Flood E.T., *Augustine and Classical tradition of rhetoric*, in *History of Education*, vol. II. No.4, 1982
- Geisler,N.L., *What Augustine says*, Grand Rapids:Baker, 1982
- Jaspers K., *Plato And Augustine*,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1962
- Howie G., *Educational Theory and Practice in St. Augustine*, New York: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1969
- Howie G., *St. Augustine: On Education*, South Bend: Gateway Editions, Ltd., 1969

Meagher R., *Augustin: An Introduction*, New York: Harper Colophon Books, 1978

O'meara J., *An Augustine Reader*, Garden city: Image Books, 1973.

Williams D. D., "The Significance of St. Augustine," Robert Battenhouse ed., *A Companion to the Study of St. Augustine*, New York:Oxford Universsity Press, 1979

원고접수: 2007년 5월 4일 1차심사: 6월 8일 게재승인일: 6월 15일

연구자 소개: 정현숙

① 전공: 교육학 / 소속: 수원대학교 교양교직과 교수

② 관심영역: 성인들의 영성교육 사상

③ 주요논저: 「대승기신론의 아라야식과 융의 무의식 비교고찰」,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과 상담」, 「돈 보스코의 예방교육에서 '종교'원리의 원천」

④ E-mail: hschung@suwon.ac.kr

Abstract

Augustine's Thoughts on Education and Faith-Education

Chung, Hyun-sook

Suwon University

The school-education of Korea met a total crisis as the disruption proceeded due to knowledge-centric practice against the whole-personality education goal. Hence faith-education in great need for moral, ethical and spiritual development. In the rapidly changing period of civilization like the present time Augustine created education method and system for religion. We considered finding a new direction and guideline on the whole-personality education from Augustine's example.

We review Augustine's thoughts on Christian faith-education with his 「Christian Education(De Doctrina Christiana)」, and discuss its significance in the present educational situation. The aim of Christian faith-education, his views on God, man and salvation, epistemology, and the relation between teacher and learner are considered. We study his characteristic thoughts on the Christian faith-education based upon the relation between faith and reason, and the problem of words and realities. Especially we consider the role of teachers, and teaching methods according to his illumination theory of learning. We emphasize the application of Augustine's thoughts and faith-education that encouraged the ethical value and higher goals of life in contemporary educational situation where the knowledge-learning is dominant.

Key words : Christian Education, Reason, Liberal art, Spirituality, Illumination theory of learning